

# 할머니와 추억·엄마의 소중한 오롯이

김옥애 '할머니와 함께한 날'  
이성자 '주꾸미 엄마'

남도 대표 동화작가 나란히 창작집 내



김옥애 작가



이성자 작가



남도를 대표하는 두 동화작가가 나란히 창작집을 발간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김옥애, 이성자 동화작가. 각각 강진과 영광 출신인 두 문인은 오랫동안 선의의 경쟁을 하며 남도 동화의 깃발을 풍성하게 일궈왔다. 한국 아동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경력이 말해주듯 두 동화작가는 폭넓은 독자층과 평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김옥애 작가가 이번에 펴낸 작품은 '할머니와 함께한 날' (좋은 꿈). 초등학교 솔이가 할머니와 함께 했던 추억을 그린 동화다.

최근 몇 년 사이 장편동화를 연달아 발표하면서 소천아동문학상, 불교아동문학상, 송순문학상 대상을 연이어 수상한 저력이 말해주듯 이번 작품 또한 작가의 저력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동화는 어릴 때 할머니를 살다가 잠시 엄마 곁으로 가게 되는 솔이의 이야기다. 솔이는 엄마와 살면서 할머니를 그리워한다. 엄마와 아빠에게 꾸중을 듣곤 하지만 할머니에게 칭찬만 들었던 때를 기억한다.

솔이는 할머니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외우기도 잘하고 글도 잘 짓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할머니는 솔이 덕분에 '이야기 할머니'가 돼 좋은 경험을 한다. 또한 할머니의 껌딱지가 돼 함께 했던

시간은 솔이에게도 있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한다. 김 작가는 광주일보 신춘문예(1975)와 서울신문 신춘문예(1979) 등단을 계기로 창작활동을 시작했으며 한국아동문학상, 송순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했다. 장편 '별이 된 도깨비 누나', '들고양이 노이', '봄날의 손님의 선물'과 동시집 '일년에 한번은', '내 옆에 있는 말' 등을 펴냈으며 현재 강진(대구면 저두리) 바닷가의 오두막 문학관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이성자 작가의 '주꾸미 엄마' (고래책방)에는 모두 8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1부 '엄마와 함께'에는 '아빠 사랑해', '별난 세탁소' 등 4편과 2부 '엄마의 마음'에는 '주꾸미 엄마', '정말 다정다정한' 등 4편이 실려 있다.

계몽문학상과 방정환문학상, 어린이문화신인대상(문학부분)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작가는 또한 평단의 관심과 아울러 작품성 있는 동화를 꾸준히 발표해오고 있다.

이번 창작집에는 어른들의 우려와 달리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속마음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려져 있다. 아이들은 아빠, 엄마를 사랑하고 형제와 친구를 배려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이겨낸다.

표제작 '주꾸미 엄마'는 식당에서 엄마를 돕다가 수족관 속 알이 뱀 주꾸미를 보고 바다에 풀어주는 아이의 이야기다. 배가 불룩한 엄마의 모습이 주꾸미의 그것에 겹쳐진 때문이다. 아이의 행동은 엄마의 소중한 사랑과 사랑을 모르코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듯 이 작가의 동화는 배려와 순수, 용기가 아름답게 수놓아진 작품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이 작가는 199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내 친구 용환이삼촌', '두레실 할아버지의 소원', '영당이에 뽕 났다', '뽕진 날다!' 외 다양한 작품을 펴냈다. 현재 광주교대 대학원에서 동화창작을 강의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 작가는 199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내 친구 용환이삼촌', '두레실 할아버지의 소원', '영당이에 뽕 났다', '뽕진 날다!' 외 다양한 작품을 펴냈다. 현재 광주교대 대학원에서 동화창작을 강의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 작가는 199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내 친구 용환이삼촌', '두레실 할아버지의 소원', '영당이에 뽕 났다', '뽕진 날다!' 외 다양한 작품을 펴냈다. 현재 광주교대 대학원에서 동화창작을 강의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 작가는 199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내 친구 용환이삼촌', '두레실 할아버지의 소원', '영당이에 뽕 났다', '뽕진 날다!' 외 다양한 작품을 펴냈다. 현재 광주교대 대학원에서 동화창작을 강의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최빈국 한국은 어떻게 선진국 관문 가입했나

홍상화 작가 소설 '30-50 클럽' 영문 번역 출간

지난 2월 소설 '30-50 클럽'을 펴내 화제를 모았던 '피와 불', '거품시대'의 작가 홍상화가 이번에는 이 소설을 영문으로 번역 출간했다.

작가 영문판을 펴낸 이유는 과거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 관문인 '30-50 클럽'(한국문학사)에 단시간에 가입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다. '30-50 클럽'이란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이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를 뜻한다.

저자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모두 식민지를 착취한 덕분에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피식민지로서 착취를 당하면서도 어려운 관문을 뚫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소설은 대화체 형식으로 구성돼 있는데,



유교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와 불교의 신앙심, 치열한 경쟁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일하는 윤리'를 들고 있다. 거기다가 '일류 선호병'도 특히 하이테크 분야에서 큰 몫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는 다수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쉽고 친근하게 풀어가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 보인다.

저자는 한국 금성장의 배경을 "평등사상에 근거한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입시 제도, 공정한 군복무 제도,



제29회 전남청소년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나주 호남원예고등학교의 '이성계 역사재판'

## 나주 호남원예고 '이성계 역사 재판' 전남청소년연극제 대상

목포 목상고 '포랑' 최우수상

나주 청소년 아카데미(나주 호남원예고등학교)의 '이성계 역사재판'이 지난 5-8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제29회 전남청소년연극제'에서 대상(도지사 상)을 받았다.

(사)전남연극협회(회장 김진호)가 주최한 이번 연극제는 광양 광영고, 순천 호산고, 목포 목상고, 해남공고, 나주 호남원예고, 여수 청소년극단 '예술나무' 등 총 6개의 고교-연극동아리가 참가했다.

최우수상은 목포 목상고의 '포랑'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해남공고의 '어린집에 내리는 꽃비'와 순천호산고의 '유린타운', 장려상은 광양 광영고의 '짜장면'이 받았다.

개인상 연기대상은 강푸른 양(목포 목상고)·홍현성 군(순천 호산고)에게 주어졌다. 최우수연기상은 임은서 양(해남공고)·이상경 군(나주 호남원예고), 우수연기상은 이도현 군(순천 호산고)·김서진 군(목포 목상고)이 수상했다. 이밖에 나주 호남원예고 최홍규 교사가 우수지도교사상을, 문유빈 양(광양 광영고), 차동준 군(여수 청소년극단 '예술나무')이 우수조연상을 받았다.

한편 이번 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단체는 오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충남 예산군 예산문화회관, 예산군청추사홀 등지에서 진행되는 '제23회 전국청소년연극제'에 전남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문의 1588-6057.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13일 은암미술관서 '장준하 판화전' 이동환 작가 토크

'장준하 서거 44주기 추모 판화전-가슴에 품은 돌베개'전을 열고 있는 이동환(사진) 작가의 아트스트 토크가 마련된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중기)은 13일 오후 3시 이동환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전시 중인 작품을 비롯해 그의 작품 세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 작가는 오는 9월2일까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자전 수기 '돌베개' 장면을 목판화로 새



긴 135점과 드로잉 작품 7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이 작가는 전시 기간 중 미술관 1층에서 목판화 작업을 진행한다. 문의 062-226-66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캄보디아 킬링필드와 5월 광주 승고한 역사를 잇다

'5·18아카이브 전시' 김광레 초대전  
13일 5·18문화센터서 작가와 대화

5·18기념재단(이사장 이철우)은 캄보디아 '킬링필드'와 5·18민주화운동의 승고한 역사를 잇는 '5·18아카이브 전시'로 김광레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KYRIE(키리에)'를 주제로 오는 9월1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전시관에서 열리는 이번 초대전은 '킬링필드'와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 제목 '키리에'는 미사 시작 예식 때 올리는 기도인 '키리에 엘레이손'(Kyrie Eleison-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에서 따왔다.

전시는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1부 '5·18, 위대한 유산'에서는 1980년 5월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이창성·나경택 사진 기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2부 '기억하고 기억하라'에서는 도자기로 사람의 뼈 모양을 구워 총의 형태로 만든 김광레 작가의 작품과 그녀가 캄보디아 킬링필드에서 직접 찍



9월 1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김광레 작가의 작품 '그대 이제 잘가라'.

은 희생자 사진 518점이 함께 전시된다. 3부 '그대 이제 잘가라'는 광복 전 끝에 묶여 전시실 내부의 공중에 떠있던 배와 그 안에 담긴 두개골 작품, 수많은 뼈 조각을 통해 애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13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오프닝 행사에서는 김

광레 작가와의 대화 시간과 함께 양기창 시인의 시 낭송, 초대가수 곳 사운즈의 공연 등이 펼쳐진다. 문의 062-360-051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